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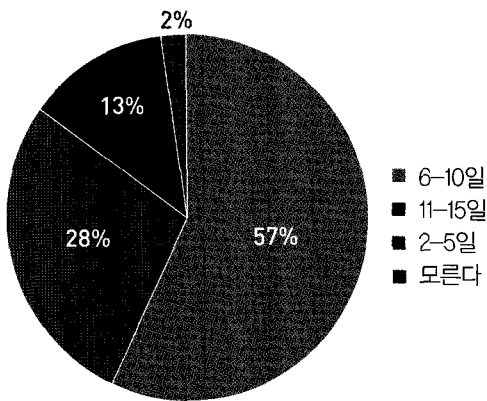
“설비건설업계 위상제고 사명감 재확인”

– 월간 ‘설비건설’ 설문조사 실시 –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정해돈)는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전국 대의원 회원사를 대상으로 월간 ‘설비건설’ 발전을 위한 구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월간 ‘설비건설’이 협회 정보제공지로서의 역할과 설비건설업계를 대변하는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재조명 함은 물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코자 실시한 것으로서, 만족도평가·전문성 평가·건의사항 등 총 7개 문항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가감없이 수렴했다.

월간 ‘설비건설’ 수령시기

월간 ‘설비건설’을 수령하는 시기에 관한 물음에 매월 6~10일이라는 답이 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1~15일 28% △1~5일 13%로 응답했다. 10일 이후에 받는 것으로 나타난 회원사들은 주로 지방 소재이거나 내부에서 수령해 대표이사에 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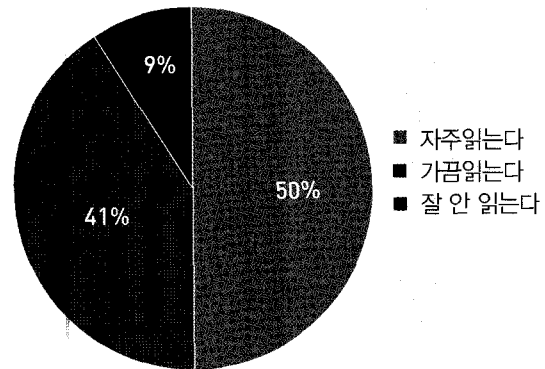


▲ 월간 ‘설비건설’ 수령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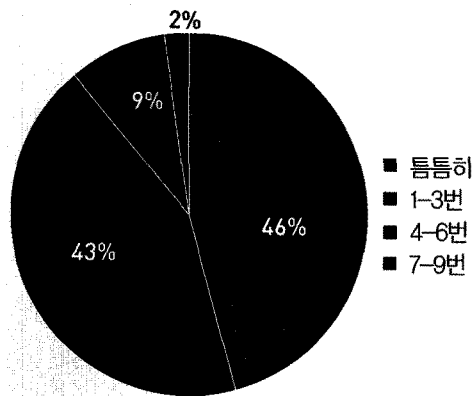
월간 ‘설비건설’ 구독현황

월간 ‘설비건설’의 구독 빈도수를 묻는 질문에 △잘 읽는다 50% △가끔 읽는다 41% △ 잘 안 읽는다 9%로, 91%가 읽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에 몇 번 정도 읽는가’의 질문에 △틈틈이 읽는다 46% △1~3번 읽는다 43% △4~6번 읽는다 9% △7~9번 읽는다 2%로 응답해 많은 회원사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읽어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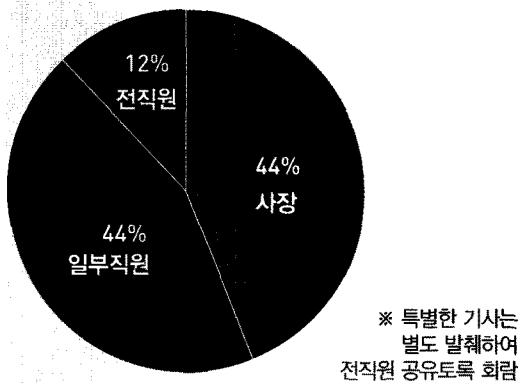
한편 구독 대상자로는 △사장 44% △일부 직원 44%로 가장 높았고, 12%는 전직원이 본다고 응답하여 업무에 필요한 기사를 꼼꼼히 살펴보는 회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원사는 회사 업무에 도움이 되는 기사 경우 별도로 발췌하여 전직원이 공유토록 회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월간 ‘설비건설’을 읽는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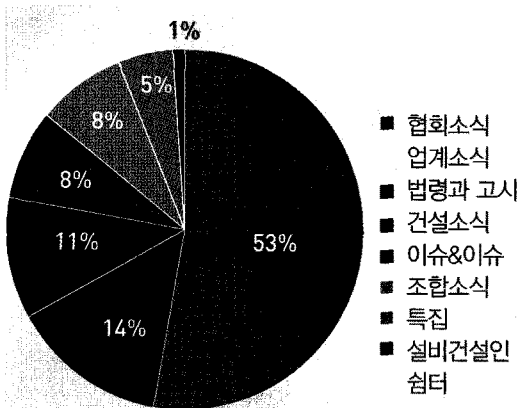
▲ 월간 '설비건설'을 읽는 빈도



▲ 월간 '설비건설'을 읽는 대상

월간 '설비건설' 기사 선호도

가장 먼저 읽는 기사에 대한 질문에 △협회소식 및 업계소식 53% △법령과 고시 14% △건설소식 11% △이슈&이슈 8% △조합소식 8% △특집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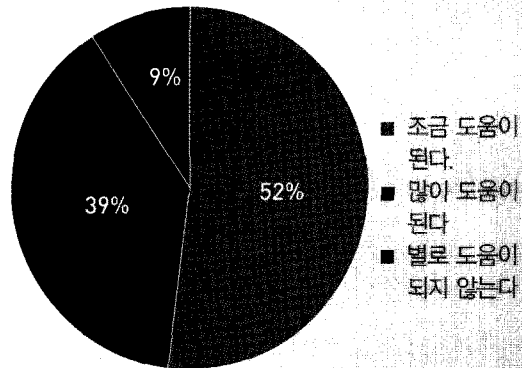


▲ 월간 '설비건설'에서 먼저 읽는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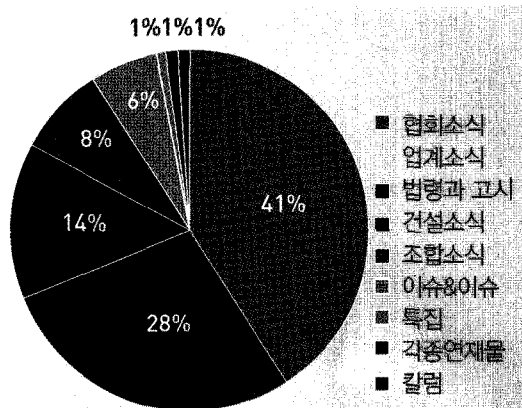
△설비건설인 쉼터 1%로 나타났으며, 협회 및 업계소식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정책 및 변화를 게재하는 '법령과 고시', '이슈&이슈', '건설소식'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내용들이 업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간 '설비건설' 유익성 및 전문성

월간 '설비건설'이 조금 도움이 된다는 회원사는 52%, 많이 도움이 된다는 회원사는 39%,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회원사는 9%로, 91%의 회원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도움이 된 내용은 △협회소식 및 업계소식 41% △법령과 고시 28% △건설소식 14% △조합소식 8% △이슈&이슈 6% △특집 1% △각종 연재물 1% △칼럼 1% 순으로 나타나 협회의 추진사업 및 건설동



▲ 월간 '설비건설'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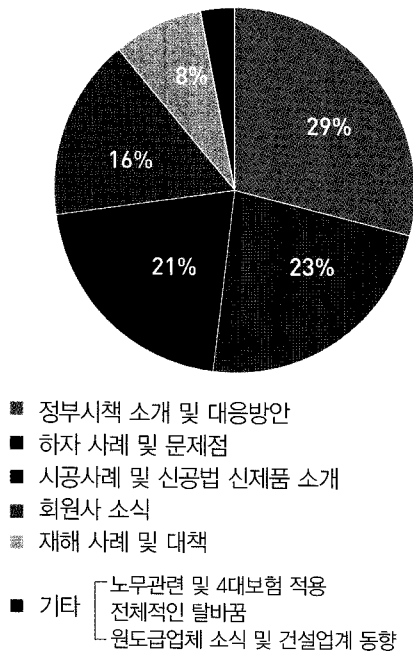
▲ 월간 '설비건설'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내용

향 등 정보 측면의 코너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월간 '설비건설'이 협회 회보 지로서의 역할은 물론 설비업계 유일한 전문지로서 회원사에 대한 맞춤 정보 제공에 큰 몫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월간 '설비건설'이 향후 다뤄야 할 내용

앞으로 월간 '설비건설'에서 꼭 다뤘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 △정부시책 소개 및 대응방안 29% △하자 사례 및 문제점 23% △시공사례 및 신공법·신제품 소개 21% △회원사 소식 16% △재해사례 및 대책 8% △기타(원도급업체 소식 및 건설업계 동향, 노무관련 및 4대보험 적용 등) 3%로 답변했다. 이는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민첩하게 적응해야 하는 업계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서, 정부 시책에 따른 대응방안과 신공법·신제품 소개 및 하자사례와 문제점 분석등을 통해 정보를 얻으려는 회원사가 많은 것을 반증한 셈이다.

이 중 '정부 시책에 따른 대응방안', '신공법·신제품 소개' 및 '하자사례와 문제점 분석' 부분은 건의사항에 중복으로 지적됐다. 회원사의 이러한 중



▲ 월간 '설비건설'에서 꼭 다뤘으면 하는 내용

복 지적은 건설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코자 하는 회원사의 욕구가 큰 것으로 풀이되며, 월간 '설비건설'은 회원사의 이러한 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월간 '설비건설'에 당부하는 말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사의 다양한 건의사항이 접수되었다. △종합건설회사 수주동향 및 현황 보도 △분리발주 및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의 필요성에 대한 심층 연구 게재 △부도업체란에 사고금액 및 주거래사 게재 등에 관한 사례 게재 △법률상담사례 등 게재된 자료를 자료집으로 발간 △타업종(전문건설업종)과 비교·분석하여 업계의 현황·문제점 대책 제시(매출액, 이익률, 생산성 등) △해외 건설 관련 정보 보강 △전문 기자 총원 및 명예기자 위촉 △발행부수 확대를 통한 협회 위상 제고 △전문성과 대중성 알맞게 배치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회원사의 이같은 바람은 협회 대변지로서 또한 설비건설업계를 대표하는 전문지로서 설비건설 분야의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회원사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협회의 위상제고에 큰 역할을 담당해달라는 염원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창간 21년, 사랑받는 설비건설 전문지로서의 도약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월간 '설비건설'이 기계설비분야의 중요성을 사회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설비건설업계의 위상 제고에 가일층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각종 자료와 다양한 최신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업계의 당면과제와 설비건설인의 욕구를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도출해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견인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흥미 위주의 읽을거리를 더욱 발굴하여 설비건설인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통해 한층 더 사랑받는 설비건설인의 잡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